4대 종교 지도자 간담회 개최

정헌율 익산시장·종단, 협력사업 재개 논의… 종교 대화합 이끌어

정헌율 익산시장이 4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시장은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4대 종단 지도자들과 화합·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임 익산기독교연합회장 이중관 목사(샘물교회), 민용화 일행스님(익산사암연합회장), 민성효 교구장(원불교중앙교구장)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정 시장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자 위주의 예배와 법회 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중단된 4대 종교 협력사업을 오는 2022년부터 재개해 종교대화합으로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교와 원불교계에서 성탄절을 맞아 축하 메세지를 전달하고 기독교와 천주교계에서는 석가탄신일 축하메세지 전달하며 상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 모인 종단 지도자들은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종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시장은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원활하게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종교계와 협력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지원 '확대'

20일부터 8800여곳 통화료 전액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시민 편의 증진 기대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익산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콜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8천800여개소이며 이달부터 1년간 지원된다.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PC 방 등이다.

안심콜 번호는 시설별로 080 고유번호로 부여되며,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증되었습니다", "방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등록 된다.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간 유지된 뒤 자동 삭제된다.

서비스는 20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후 전용번호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해지 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전자출입자명부와 안심콜(간편전화 체크인)이 의무화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안심콜 도입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는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안심콜 서비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와 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며"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업소별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굿네이버스 후원회, 취약계층 영유아가정 난방키트 전달식

군산시는 굿네이버스 군산지역후원회(후원회장 신은옥)와 함께 취약계층 영유아가정을 위한 '난방키트'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신은옥 굿네이버스 전북군산지역후원회장,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난방키트'는 굿네이버스 전북군산지역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진행한 'YOU ARE GOOD 나눔마켓'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겨울점퍼, 방한모자, 방수장갑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전달받은 '난방키트'를 군산지역 내 취약계층 영유아가정 50가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아동이 직접 의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은옥 굿네이버스 전북군산지역후원회장은 "추운 겨울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후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꾸준히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 가정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해주신 굿네이버스 전북군산지역후원회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조직된 굿네이버스 전북군산지역후원회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함께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국내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참여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으로 최정원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제도 지속 운영

군산시 법률상담관 '최정원 변호사' 위촉

군산시는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으로 최정원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촉된 법률상담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년간 군산시민을 상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매월 2째, 4째 월요일 오후 5시~6시까지 시청 1층 열린민원과 민원상담실에서 실시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 후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37회 운영, 84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법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구축 완료

군산시가 실시한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정보화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수요가 적어 초고속 통신망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국·도비와 민간자본을 지원받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통신사와 협약해 마을 중심부까지 광케이블과 통신주, 광 단자함 등 통신 설비를 구축해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 2020년에 7개 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도 옥구척동, 회현구율, 회현구복, 서수성자, 서수산구, 대야동오산리, 옥서남동, 개정원발산, 옥도관리도 등 9개 마을에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됐던 소규모 농어촌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물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및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언택트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농촌 마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초고속통신망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시설 확대

익산시가 환경기초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과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을 위해 시설을 확대 구축한다.

시는 내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돼 각각 국비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등 총 2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억4천을 투입해 내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옥상에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유휴부지에 투명폐트병 별도 선별·압축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2만3천kw의 전력을 생산해 약 2천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약 10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전북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최우수'

익산시가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로써 시는 민선 7기에 진행된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3년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익산시 정보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는 정보보안정책 및 전자정보보안과 사이버위기관리 등 6개 분야·55개 지표에 대한 보안 수준 평가로, 시는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정보보안 평가지표 성과달성을 위해 꾸준히 점검하고 부진한 분야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전직원 정보보안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운영, 스마트기기와 무선인터넷 구축 확대에 따른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보안시스템 구축 등 대응력도 강화했다. /익산=이득훈 기자